

한우

‘슈퍼알파걸’로 주목 받는 탤런트 김선아 모델 한우CF 7월부터 TV 방송

MBC 수목드라마 ‘아이두아이두’에서 슈퍼알파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김선아 씨가 한우 자조금 모델이 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 <http://www.hanwooboard.or.kr>)는 한우 CF모델로 김선아 씨를 기용,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6월 20일 촬영에 돌입한 이번 한우 광고의 콘셉트는 ‘한우건강백과’이다. 김선아는 광고에서 직접 한우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강성기 위원장은 “슈퍼알파걸로 불리고 있는 김선아의 이미지가 육류 중 첫째가는 한우의 이미지와 매칭된다는 점에서 김선아를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며 “김선아의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도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슈퍼알파걸’이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여성’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번 한우 TV 광고는 7월 1일부터 방송된다. 한우 자조금은 이번 광고캠페인을 시작으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축산경제 옥미영 기자

양돈

역대 최대 규모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성료 65개국 3000여명 참가, 선진 양돈지식 정보교류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세계양돈수의사대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공리에 폐막됐다.

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The 22nd 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Congress)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Happy Pigs · Healthy People(행복한 돼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병모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국내외 양돈학자, 양돈수의사 등 65여개국 3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원형 조직위원장은 “지난 2008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세계양돈수의사대회의 한국 유치에 성공해 18년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책임 있는 질병 감시로 돼지고기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기자

양
계

‘우리맛닭’ 생산·가공·유통 모델 완성
계획 착수
축산과학원·파주시농업기술센터,
‘지역 명품화’ 일환 공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가 지역 명품화 닭고기 생산모델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신품종 우리맛닭 종계사육기술 현장접목분야를 맡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측은 친환경 기능성 우리맛닭 브랜드 제품개발 및 마케팅 기법개발을 담당, 우리맛닭을 보급한다.

공동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종자의 차별화, 사료의 차별화, 생산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문화가 담긴 진정한 의미의 차별화된 명품 닭고기를 생산하는 모범답안을 만드는 것이다.

파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우리맛닭 종계에서 실용계를 생산해 지역부산물을 이용한 전용 사료로 키워 2kg 이상의 규격품 15만수 이상을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다.

이 연구사업은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파주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급형 닭고기 생산·가공·유통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친환경적 생산방식으로 대상농장, 가공장의 HACCP 인증 취득 및 생산물 역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G마크를 취득하고, 동시에 지역정서가 담긴 상표 개발을 통해 마케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최희철 가금과장은 “이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년 후 국립축산과학원

에서 직접 분양하던 우리맛닭 종계는 민간의 원종계 농장에서 분양 역할을 맡게 되고, 축산과학원 가금분야 연구원들은 다양한 후속 종자개발과 보다 종합적인 현장 중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경제 이해진기자

낙
농

“낙농자조금이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서 왕기춘 선수 등 스포츠 스타 5명 응원

런던올림픽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농자조금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우리 흰우유가 응원하는 올림픽 스타’란 캠페인을 통해 유도 왕기춘 선수를 비롯해 5명의 국가대표를 응원한다.

유도의 왕기춘 선수는 지난 올림픽에서 부상으로 인해 결승에서 안타깝게 저 은메달에 그쳤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또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는 잘생긴 외모 뿐만 아니라 실력도 좋아 단식과 복식에서 2관왕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기종목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우유 500ml씩 먹어 키가 컸다는 농구팀의 막내 이종현 선수의 메달 획득을 기원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까지 3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격의 진종오 선수와 태권도에서 2연패를 노리는 차동민 선수를 응원한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